

광주, 미래신산업 이끌 연구기반 전국서 가장 취약

민주당 송갑석 의원 국감서 지적

광주시가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연구기반 등 토대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1%로 전국 최하위이며, 종사자 수도 0.2%에 불과했다. 광주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도 2.2%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산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주도 지식산업센터 구축현황'에 따르면, 2019년 5월말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1072개에 입주한 기업은 총 3만 3718개로 이 중 83.4%인 2만8137개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호남권 1.0% (322개)로 강원·제주권 0.1%(32개)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영남권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13.8%(4651개)로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호남권과 강원·제주권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종사자 수는 각각 1995명, 273명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 50%와 재산세 37.5%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으로부터 인기가 많다. 최근에는 기숙사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호남권, 322개로 전국 최하위

97% 수도권·영남권 집중

전국 7개 스마트그린산단 중

광주, 스마트공장 보급률 최저

근린시설, 상가까지 입주할 만큼 여건이 좋아졌다. 그러나 이 같은 수도권 편중 현상이 드러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지식산업센터의 수요가 늘어나며 정부·지자체가 '지역주도 공공임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에는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며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주도 공공임대 지식산업센터를 균형적으로 운영해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 역시 2.2%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였

다. 전국 7개 지역의 스마트그린산단 중 광주 산단의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산단별 스마트공장 보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1,132개 중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단 25개로 광주 산단 전체 입주기업의 2.2%에 그쳤다.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 산단으로, 입주기업 2959개 중 428개 14.5%에 달했다. 이어 창원 산단 입주기업 2664개 중 9.6%인 257개, 구미산단이 2376개 중 7.6%인 188개였으며, 여수 산단 5.2%, 남동산단 4.6%, 반월산단 3.5%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을 목표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출범해 중소기업 및 지역 산단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 지역 스마트산단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해 생산성 및 경쟁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열악한 산단 인프라 개선과 지역 중점산업을 육성을 위해 광주 산단의 특성과 방향에 맞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경찰, 파이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공상(공무상 재해) 경찰관인 김진영 순경을 격려하며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행정통합 핵심은 지역경제 발전”

원원할 수 있는 연구 선행돼야

조만간 이용섭 시장 만날 것

김영록 전남지사는 21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경제적 통합이 핵심이며, 통합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애초 시도 통합 이슈는 국토 균형발전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연구와 토론·검증 과정을 거쳐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게 사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말로 예정된 이용섭 광

주시장과의 통합 이슈 관련 원포인트 회동과 관련해 “회동에 앞서 미리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실무 차원의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시기와 내용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5일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공개한 ‘단계적 통합 접근’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합 청사 소재지는 어디로 두느냐는 질문을 받은 김 지사는 “이용섭 시장과 만나 의견을 들어보겠다”면서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보니 만일 통합을 하게 된다면 남악신도시에 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답했다. 만일 행정통합에 합의한다면

도 청사 소재지를 두고 지역 내 분란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합을 지역 내 균형발전의 의미를 더해 남악에 통합청사를 두고 싶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다가 통합 청사 문제로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통합 청사 문제를 먼저 매듭짓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의 행정통합 관련 원포인트 회동 후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 방식, 절차, 관련 연구 용역 발주 등 일종의 로드맵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경수 경남지사 “부마와 광주는 형제, 민주주의 함께 이끌어 가야”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사진)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 특별세션 - 부마와 광주, 기억·계승·참여’에 참여해 “부마(부산과 마산)와 광주는 하나, 한 뿌리에서 난 형제와 같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는 “부마와 광주가 하나로 연결되는 고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좌절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됐다”며 “지역 연대를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



세계의 지역 민주주의를 이끌고 실현하는 모범을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를 넘어서 생활 속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마와 광주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 나아가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지역 민주주의를 이끌고 실현하는 모범을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다음 달 6일 댓글 여론 조작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번 재판에서 김 지사가 무죄를 받는 경우, 여론의 차기 대선 구도가 다시 한 번 출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친문 진영이 김 지사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결집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김 지사의 부인이 전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호남의 사위’로 평가 받으면서, 영호남의 지지를 모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불후의 명작 배출...로렌초의 조건없는 후원



김은영의 ‘그림 생각’

(332) 메세나

최근 지역미술계에서 한 기업인이 어느 화가에게 전폭적인 후원과 함께 전시회를 마련해 주었다는 메세나 미담이 화제다. 작가가 밥벌이를 해야 하는 번민 없이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 년여 기간을 후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돈이 많아서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예술 애호는 기본이고, 지역에서의 기업 활동을 통해 성공을 이룬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예술가들을 후원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했던 높은 시선의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 같다.

인문학자들과 예술가들을 조건 없이 후원하기로는 세계 최고의 부자 가문이었던 메디치가 으뜸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메디치 가문의 3대 통치자였던 로렌초 데 메디치(1449-1492)의 미켈란젤로 후원은 메세나 정신의 절정이다.

이탈리아 화가 오타비오 바니니(1585-1643)의 ‘위대한 로렌초와 당대의 예술가들’(1635년 작)은 로렌초의 일화를 그린 프레스코화로 당시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그림이다. 작품 속 로렌초는 좌대에 올려진 파우누스 조각을 말하고 있다.

로렌초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메디치 정원’을 피렌체의 예술 지망생들에게 개방하여 마음껏 작품을 연습하도록 배려했다고 한다. 어느 날 로렌초는 ‘사냥과 목축의 신’ 파우누스의 두상을 조각하고 있는 소년 미켈란젤로를 만났다. 로렌초는 그



오타비오 바니니 작 ‘위대한 로렌초...’

소년에게 한 마디를 건넨다. “늙은 할아버지의 이빨치고는 너무 가지런하지 않니?” 미켈란젤로는 로렌초의 지적을 받고 가지런한 이빨을 뽑아내고 잇몸까지 허물어 영락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다시 조각했다.

이튿날 다시 작업한 파우누스 조각을 보고 전율하면서 소년의 천재성을 알아본 로렌초는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한다. 로렌초는 미켈란젤로에게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들에게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배우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불후의 명작을 남긴 걸출한 예술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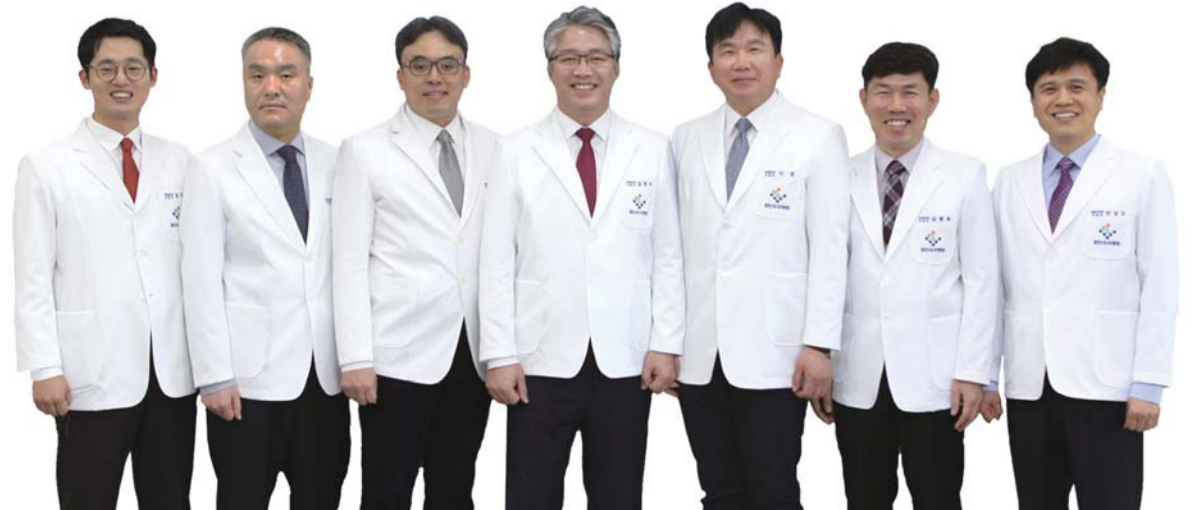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